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군중과 표징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기적에 이끌린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과 소란스러움을 떠나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신 것은 본받을 만한 처신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수난 일 년 전, 곧 세례자 요한이 참수된 직후의 파스카 축제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필립보에게 모든 일은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를 시험하십니다. 요컨대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리스도의 기적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굳게 믿게 하는 예증입니다.

제자들은 졸곧 난감해 어쩔 줄 모르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거친 보리빵의 수, 다섯은 모세오경을 암시하고, 그보다 부드러운 물고기의 수, 둘은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가르침을 암시합니다. 예언의 의미로 이 기적을 해석하면, 보리 알갱이(그리스도)가 껍질(구약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껍질이 벗겨지면 알갱이가 무수히 많은 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물고기 두 마리는 사제들과 임금들을 상징하며 그 두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으로 풀 수 있

습니다. 이때는 날이 나날이 따뜻해지는 니산 달이어서 들판에 풀이 많았습니다. 배불리 먹은 오천 명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믿음에 든 오천 명을 예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때와는 달리 군중을 먹일 준비를 하실 때 먼저 기도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첫 번째 창조 행위 때에도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성령께서 당신과 결속되어 계심을 보여 주는 한편, 우리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라고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인지 미처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깨달은 듯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인간의 오감이 느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낱알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낱알들이 땅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당신의 기름지고 창조적인 손에 맡겨진 듯이 마구 불어나게 하십니다. 옛 계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부서져 열리듯이, 빵도 떼어 나누어질 때 늘어납니다. 산에 흠어졌던 빵 조각들이 모아들여져 하나가 되었듯이 세상 각지의 교회들이 모여 하느님의 나라가 되었으며, 이 기적에서 빵이 남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 당신 사도들을 통해 주신 빵의 선물은 교회의 삶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도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관대히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작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뒤에야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세상에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들은 세속의 권력에 매혹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지위를 하찮게 여기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임금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도 세속적 영광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약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산으로 가시어 기도하신 것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땐 언제나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문경 본당 최상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끼니때마다 음식을 먹고, 또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들려주십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으며 사는 우리는 영적인 양식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용기로 살아야겠습니다. 더불어 성체 신심을 더 견고히 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본기도

†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열왕기 하권 4장 42절-44절

안 내 :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고 말합니다.

묵 상 : 주님과 함께 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거나 넘칠 때에도 하느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늘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느껴봅시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 : 에페소서 4장 1절-6절

안 내 :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묵 상 : 우리는 주님께 불리운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늘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6장 1절-15절

강 론 : ‘군중과 표징’(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주님,

당신께서는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의 군중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온

이 작은 아이의 마음과 정성스런 봉헌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나눔과 희생과 사랑의 결정체로 드러납니다.

<침묵>

아이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어

큰 사랑의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 또한 제가 가진 어떤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 자신의 이익과 편함과 욕심을 알지 못하던

순진무구한 마음의 어린이였었는데

어느새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침묵>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주님,

당신을 진실로 알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399번 ‘주님 안에 하나’

※ 공소사목 성금

남승호	50,000원
신효원	50,000원
김득순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55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7일(화) 14:00-8일(수) 14:00
- 장소 : 우곡성지
- 장소 : 성소에 관심있는 초등부 남학생 (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 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2018년 귀농(귀촌)신자 모임

- 일시 : 8월 9일(목) 10:00 - 점심식사
- 장소 : 안동 교구청
- 준비물 : 미사 준비
- 신청마감 : 8월 2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가나 혼인 강좌

- 일시 :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안동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구
- 신청마감 : 8월 11일까지 사목국으로
- 신청자격 : 결혼을 앞둔 남·여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시~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만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제17회 초록빛 교실(가족 캠프)

- 일시 : 8월 4일(토)14:00~5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단체
- 참가비 : 1인 2만원(3식 및 간식 포함)
- 신청 : 교구 사목국(054-858-3114~5) 선착순 100명
- 문의 : 정장훈 안드레아(010-3827-2275)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꽃동네 젊은이 성령 피정

- 일시 : 8월3일(금)13:00 ~ 5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치유미사 : 꽃동네 오웅진 사도요한 신부
- 대상 :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 젊은이
- 회비 : 3만원
- 문의 : 010-5490-5345

■ 1일 영성 피정

- 일시 : 8월 18일(토) 10:00~17:00
- 장소 : 하망동 성당
- 강사 :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청주교구)
- 회비 : 5천원(식사대)

■ 가톨릭 신문사 직원 모집

- 모집 분야 : 편집, 취재, 영상기자, 투어팀 사원
- 마감 : 8월 19일(일)까지
- 홈페이지 : www.catholictimes.org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규범과 식별’

304. 개인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나 일반 규범에 맞는지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일입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의를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서 식별하고 확인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사목적 식별에 이를 통합하는 법을 배울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것에는 어느 정도 필연성의 존재하지만, 개별적인 분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불확실성은 더욱 커집니다. …… 실천의 영역에서, 진리나 실천 규범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 적용 됩니다. 개별적인 것에 동일한 실천 규범이 적용되어도, 그것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개별적인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일반 규범이 결코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선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규범들은 모든 개별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로 개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식별은 규범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단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결의론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하는 가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305. 이러한 이유로 목자는 도덕률을, 마치 사람들의 삶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나 되는 듯이,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모세의 의자에 앉아 때로는 거만하고 피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과 상처 입은 가정들을 단죄”하려고 교회의 가르침 뒤에 숨는 것이 익숙한 이의 닫힌 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신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연법을 도덕적 주체에게 선형적으로 부여된 기존의 규칙 전체로 제시할 수 없습니

다. 오히려 자연법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 영감의 원천인 것입니다.”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관적으로 죄가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히 죄가 아닌 차원의 죄의 객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사랑하며 은총과 사랑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별은 하느님께 응답하는 방법과 더불어 한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흑백논리로 은총과 성장의 길을 차단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꺾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커다란 한계 속에서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걸보기에만 올바른 생활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목자들과 공동체들의 구체적 사목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06. 갖가지 상황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초대하여야 합니다. 형제적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율법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의로운 일을 하시어 죄를 벗어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의를 벗어나십시오.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죄를 없앤다.” 이는 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는 당연히 불을 끄려고 물을 찾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의 지푸라기에서 죄의 불길이 솟아올라 곤경에 처할 때에도 그와 같습니다.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되면 그 불을 끌 수 있는 샘이 주어진 듯이 기뻐하십시오.”

사목적 자비의 논리

307. 모든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교회가 혼인의 온전한 이상, 곧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세례 받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기회가 주는 도움으로 힘을 얻어, 혼인성사가 그들 사랑의 계획에 마련해 주는 풍요로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미온적 태도나 모든 형태의 상대주의, 또는 그러한 혼인의 이상을 제시할 때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젊은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이 완전한 이상의 빛을 흐리거나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것에 이르지 못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혼인을 강화하여 그 파경을 막는 사목적 노력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색다른 선물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선물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사람사이 에 긍정적 정서와 연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10명중 9명은 선물을 준비할 때 행복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때로는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 때문이다.

선물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편하던 시절이 있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남편들의 제일 큰 고민은 선물이었다. 특히 아내를 위한 선물이 그랬다. 귀한 해외여행을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했다. 여행 내내 무엇을 살지를 고민하는 남편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선물을 구입하고 나서야 얼굴이 편안해졌다.

나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내를 위한 선물을 몇 번 사온 적이 있다. 고민 끝에 내 기준으로는 괜찮다 싶은 선물을 골랐다. 그런데 기대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선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서로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선물 문제는 해결됐다.

내가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그랬다. 그때는 흔히 차나 한 잔 하라며 약간의 돈을 보태주었다. 그러면 여행자는 감사의 표시로 열쇠고리나 볼펜 등을 사왔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언제부터가 사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부담스러워했다. 서랍에는 선물 받은 열쇠고리가 쌓여갔다. 그 관행이 사라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살면서 나도 많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많았지만 부탁을 위해 한 것도 있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선물은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작은 것이라도 일단 받게 되면 짐이 된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아직도 기억나는 선물이 있다. 교생실습을 할 때였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는 여고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스승의 날인지도 모른 채 출근 시간에 쫓겨 교무실로 향하는데 문 앞에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줍게 웃으며 한 아름 꽃과 함께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밖의 정성을 느꼈을 때의 기쁨은 그 정성만큼이나 크고 놀랍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다.

선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면 만족감은 훨씬 커진다.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나보다 한 수 위다. 가끔씩 출장이나 교육 등으로 며칠간 집을 비울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집 도배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물건을 들여놓았다.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부재중에 일을 처리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다. 어떤 선물보다도 더 정성이 느껴졌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해보리라 다짐을 했다.

아내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화장실 대청소를 시작했다. 목은 곰팡이 때를 제거하고 바닥코팅을 한 후 뒷정리까지 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힘은 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돌아온 아내는 기대이상으로 좋아했다. 정말 수고했다고 고마워하는 아내를 보며 가끔씩 색다른 선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누구에게 감동할 만한 선물을 한 적이 없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주고받았을 뿐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내 기준으로 선물을 정했다. 이제는 선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 전하는 것이니 금전적 가치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쏟다보면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 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자체가 선물이다.